

쌍화점 소고

김 배 덕*

- I. 서 론 (1) 외부 세력의 억압
- II. 삼장의 성격 (2) 지배 계층의 문란
- III. 삼장과 쌍화점의 관계 (3) 무퇴배들의 횡포
- IV. 쌍화점 형성의 시대 배경 V. 결 론

I. 서 론

악장가사 소재 쌍화점은 산개되지 않은 原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¹⁾ 반면 시용향악보의 쌍화곡은 쌍화점의 개작으로 한역가요이며, 가사 내용과 곡에 있어서 악장가사 쌍화점과는 전혀 다르다. 이즈매 妄誕이니 음사니 하여 전대 구악에 대하여 벌였던 비판은 기실 고려적 잔재를 지워 버리려는 이조의 열망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고려 속요가 산일했던 것이다. 쌍화점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국문으로 정착된 속요 중의 하나로 여러 각도에서 조명된 작품이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직도 많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고려사 악지에 나오는 한역 가요 三藏의 성격, 삼장과 쌍화점과의 관계, 쌍화점 형성의 시대 배경 등 지엽적인 몇 문제만을 고찰해 보려 한다.

II. 삼장의 성격

삼장은 高麗史 卷 71 志卷第 25 樂2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 釜山大人文大 講師

1) ① 조 윤제 : 조선시가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pp.104-106 ② 최 동원 : 국어국문학, 부산대 국어국문학회 1963, pp.4-8 ③ 이 혜규 : 한국음악서설, 서울대출판부 1975, p.129

三 藏

三藏寺裏點燈去 有社主兮執吾手
倘此言兮出寺外 謂上座兮是汝語

蛇 龍

有蛇含龍尾 聞過太山岑
萬人各一語 斟酌在兩心

右二歌 忠烈王朝所作 王狎群小 好宴樂 倖臣吳祈, 金元祥, 內僚石天輔, 天卿等 務以聲色容悅 以管絃房太樂才人爲不足 遭倖臣諸道 選官妓有姿色技藝者又選城中官婢及女巫善歌舞者 籍置宮中 衣羅綺戴馬尾笠 別作一隊稱爲男粧 教閱此歌與群小 日夜歌舞褻慢 無復君臣之禮 供億賜與之費 不可勝記

(점은 필자가 찍은 것)

또 高麗史節要 卷22 忠烈王 25年 5月條에도 흡사한 내용이 실려 있다.

幸壽康宮 王狎昵群小嗜好宴樂 倖臣吳祈 金元祥 內僚石天輔天卿等 務以聲色容悅 謂管絃坊大樂才人猶爲不足 分遭倖臣諸道 選官妓有色藝者 又選城中官婢及巫善歌舞者 籍置宮中 衣羅綺戴馬尾笠別作一隊 稱爲男粧 教以新聲, 其歌云…… 中略……其高低緩急無不中節 王之幸壽康宮也 天輔輩張幕其側 各私名妓 日夜歌舞褻慢 無復君臣之禮 供億賜與之費 不可勝記 (점은 필자가 찍은 것)

위 기록을 보건대 “右二歌忠烈王朝所作”이라고 적혀 있어 삼장은 충렬왕대에 지어져 가창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자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삼장의 작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다만 吳潛, 金元祥 무리가 깊게 관련돼 있었음은 짐작할 수 있다. 吳潛등이 ‘教閱此歌’, ‘教以新聲’, 혹은 ‘務以聲色容悅’ 했다는 것은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그런데 본가에 대하여 양 주동님은 “경도부근에 유행된 속요를 採한 것”²⁾이라 하여 민요에 접근시켰고, 정 병욱님은 “쌍화점은 명백히 고려조 충렬왕대의 작품임을 알 수 있고, 그 작자는 충렬왕대의 행신들인 吳潛, 金元祥, 石天輔, 石天卿의 합작이거나 그 중 어느 한 사람의 작업에 틀림없다”³⁾고 하여 창작 가요임을 주장했다. 또 여 증동님은 吳潛의 창작가요라 단정하기도 했다.⁴⁾ 이의 다른 분들의 견해는 위의 세 주장으로 포괄

2) 양 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71, p. 253

3) 정 병욱: 한국고전시가론(쌍화점고), 신구문화사 1977, p. 117

4) 여 증동: 쌍화점연구(1), 한국어문학회(어문학), 1968, p. 17

할 수 있다. 필자는 양 주동님의 속요설에 따르나, 어느 한 지방으로는 한정시킬 수 없는 총렬왕 당시의 민간 유행 가요로 규정하고자 한다. 다음에 그 이유를 몇 갈래로 나누어 논하고자 한다.

1. 삼장은 승려의 파계행위등 불미스런 세속화가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즉 “三藏寺에 불을 혀라 가고신던 그 덜 社主 내 손모글 주여이다”는 권력과 결탁한 승려의 비행과 음란행위가 대상임을 말해 준다. 이는 당시의 사회상이 반영된 것으로 불교의 타락현상과 부합이 잘 된다. 그러므로 삼장은 불교의 타락이 연원이 되어 형성된 민요라 할 수 있으며, 총렬왕 때 吳潛등에 의하여 악장으로 채택되어 가창된 것이라 보아진다.⁵⁾ 이 가요가 악장으로 승화되면서 내용과 형식이 변조되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삼장 형성의 요인이 뻬던 불교 타락 현상은 어퍼했으며, 불교를 구원수단으로 삼았던 고려 백성들이 승려의 비행을 담은 이런 가요를 어떻게 형성시켰을까 하는 문제를 알아 본다.

고려 태조는 훈요 10조 첫번째에서 불교를 호국 종교로 강조했다. 이후 불교는 국교로 국가에 공헌을 많이 했으나, 반면 폐해도 심했다. 잦은 佛事로 국가의 재정은 낭비되었으나, 별사전 제도등과 같은 특권 부여로 사원의 부는 확대되어 이를 지키기 위하여 승병이 양성됐다. 김 부식과 같은 귀족 계급도 자신의 재산을 도피시키기 위해 불교사원의 願堂을 만드는 등 불교를 빙자한 비행을 자행했다.⁶⁾ 백성들 중에는 군역을 면하려고 불문에 가탁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타락은 가속화됐던 것이다. 또 승려 중에는 파계행위를 저질러 비난을 받는 자도 많이 생겼다.” 이리하여 불교를 비판하며 배척하는 사람이 차츰 생기게 됐다. 성종때 최 승로는 ‘時務二十八條’에서 불교 및 도참의 사상을 비난하여 불교배척의 전기를 마련했고, 무신집권시대 최 충현은 ‘사회개혁안 10개조’에서 佛寺의 비행을 지적하여 불교배척의 기운을 양성하는데 한몫했다. 그 뒤 총렬왕 조의 안유, 충숙왕 때의 백 이정, 충숙왕 때의 최 해 등 名儒가 나와 성리학을 진

5) 다음 Ⅱ장 참조

6) 김 철준 : 한국문화사론, 지식산업사 1979, p.128

7) 진단학회 : 한국사(중세편), 을유문화사 1980, p.708

작성키면서, 불교 배척에 앞장섰다. 안 유는 원나라에 다녀와서 문교진흥을 위해 贍學錢을 설치하고, 국학대성전을 낙성하여 유학을 크게 장려하였으며, 백 이정도 원에서 주자학을 배우고 돌아와 이 체현, 박 충좌 등 제자를 가르쳐 성리학을 전파시키고, 불교를 배척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성리학의 전래와 발달은 양립이 거의 불가능한 불교의 배척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여기다가 불교자체가 타락했으니 배척의 기운이 일어남은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하겠다. 이런 중에서도 왕들은 자주 飯僧을 했는데, 이러한 것도 굶주리는 백성들에게는 좋게 보였을 리 없을 것이다. 상층계층의 불교배척의 기운,⁸⁾ 불교자체의 타락, 정신세계를 지배할 새로운 이념의 등장, 백성들의 불교에 대한 환멸,⁹⁾ 이런 것들이 제 요인이 되어 승려의 음란 행위를 담은 민중의 노래가 자연스레 형성, 유포될 수 있었다고 보아진다.

2. 충렬왕은 노래와 춤을 즐겨, 倖臣들로 하여금 연회석상에서 자주 춤을 추게 했으며, 왕 자신도 춤을 추곤 했다. 간신들은 왕의 이런 성향을 출세의 도구로 삼아 저속하며 음란한 유행 가요를 연주하게 하여 왕의 비위를 맞추었다. 충렬왕 6년 감찰사의 장계엔 대장군 尹秀와 대선사 祖英의 음란하며 무례한 행위를 규탄하면서, “음악을 연주할 때엔 향간의 저속한 노래는 물리쳐라”¹⁰⁾는 내용도 있었다. 여기에 나오는 향간의 저속한 노래(巷之俚謠)란 俚謠로 유행가요이다. 이는 충렬왕 당시 민간에 유포된 노래가 궁정으로 많이 유입됐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으로, 어느 나라에도 있는 현상이며 민속이나 원시예술에 있어서 현저하다고 보겠다.¹¹⁾ 속요가 민간에서 궁정으로 유입됨에는 기녀들의 역할이 컸다면서 최 동원님은 “고려의 속가는 특히 그 향유 계급이었던 서민과 민중에서, 고도로 발달된 궁중의 가사로 승화되었다는 점을 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¹²⁾라고 논급했

8) 앞의 예외에도 ‘익재난교’서문에 있는 승려비행에 관한 비난의 글도 여기에 해당될 것임

9) 역시 ‘익재난교’에 있는 민요 都近川謠(?)도 증거가 될 것임.

10) 고려사절요권 20 충렬왕 6년 3월조 “...聲樂則斥委巷之俚音進教坊之法曲一國望之...”

11) Rene Wellek and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 Great Britain penguin book, 1956

12) 최 동원: 앞의 책

다. 이렇게 볼 때 충렬왕 6년에 감찰사에 의해 폐지가 제의되었던 민간의 저속한 노래(巷之俚音)처럼 삼장 사롱 등의 노래도 吳潛등이 채집하여 男粧別隊에게 가르친 민중의 저속한 유행가요라 해도 좋을 것이다.

3. 삼장의 부대기록에는 吳潛이나 기타 어떤 인물도 이 가요를 창작했다고는 되어 있지 않는데도 굳이 창작가요라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옛 전적은 작품의 창작 여부를 대체로 잘 표기해 주기 때문이다. 즉 삼장 사롱과 함께 충렬왕 앞에서 가창된 태평곡은 간신 金元祥이 창작한 것인데, 이에 대한 기록으로 “元祥製新調太平曲”이라 하여 작자문제에 관한한, 논란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삼장과 태평곡이 다 창작가요인데도 어느 한 쪽은 ‘製’자를 넣어 창작가요임을 나타내고 다른 한 쪽은 창작가요인데도 ‘製’자를 쓰지 않은 채 창작가요임을 나타내려 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런 즉 ‘製’자가 사용되어, 창작가요임이 분명한 것은 창작가요로, 그렇지 않은 것은 비창작가요로 이해하여야 되지 않을까 한다. 이런 차원에서 新聲삼장은 개인에 의하여 새로 창작된 가요가 아니라, 새 유행 민요로 보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다음의 예문은 앞의 주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王命典理正郎閔演 國學直請趙簡製新曲 左副承旨安珣 亦製詩以進…¹³⁾

…丙子入京張樂雜戲 學生獻歌謠 上王命止之…¹⁴⁾

…又於第南 作中和堂 邀國老八人 爲耆英會 作紫霞洞新曲 今樂府有譜…¹⁵⁾

(방점은 필자가 적은 것)

위의 기록들에서도 가요를 창작할 적에는 ‘製’를 분명히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가요에는 ‘新曲’이란 말로 표현했으며, 기존의 노래는 ‘歌謠’란 단어로 표기했음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이 유를 들 수 있다.¹⁶⁾

13) 고려사절요 권 21 충렬왕 14년 5월조

14) 앞의 책 권 23 충선왕 6월조

15) 앞의 책 권 25 충혜왕 후원년 1월조

16) 여기에 들어가는 몇 이유 중의 하나는 ‘三藏’의 국문 표기 형식이 교대창 형식이며, 후렴구를 사용했다는 점, 표현 양식이 서술적으로 돼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Ⅲ. 삼장과 쌍화점의 관계

본고에서는 여사악지에 한역 가요로 실려 있는 ‘삼장’과 악장가사 소재 쌍화점과의 관계를 말해 보고자 한다. 대개 쌍화점의 창작시기나 작자를 논하려 할 때에는 삼장에 관한 부대 기록을 준용하고 있다. 이는 男粧別隊에 의해 가창됐던 삼장의 한역내용이 현전 쌍화점의 2연 내용과 동일하며, 이로써 이것의 한역이 삼장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금까지의 견해에 상처되는 입장을 취하면서 논지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1. 삼장은 쌍화점의 모태가 되는 기본연이라 할 수 있다. 즉 2연을 제외한 쌍화점의 3개 연은 삼장 형식에 맞추어 읊어진 가요이며, 시기적으로도 삼장의 생성 이후에 형성된 것이라 보겠다. 왜냐하면 삼장 생성의 배경인 불교 타락은 그 여건으로 보아 충렬왕 때까지 삼장을 충분히 탄생시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쌍화점 1, 3, 4연이 형성될 만큼 사회적 조건이 성숙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유행 민요인 삼장이 吳濼 등에 의하여 악장으로 승화된 것이라면 쌍화점은 이 민요 삼장이 유형이 되고 당시의 사회상이 배경이 되어 4연 형식의 연장체 가요로 확대 발전한 것이라 하겠다.

2. 한역 기록된 삼장은 쌍화점의 발췌 한역이 아닌 新聲음사였던 原歌를 한역한 것이라 보아도 좋을 듯하다. ‘삼장’이 독립된 原歌의 한역일 것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최 정여님은

쌍화점 제 2연의 三藏寺句는 여사악지에 삼장 사롱이라 하여 독립된 가요였음을 알 수 있고 또 역가에 있는 歌意와 일치한 것으로 보아 타 가요와의 합성물이 즉 쌍화점임을 인지할 수 있다.¹⁷⁾

고 주장하였다. 만약 현전 쌍화점이 처음부터 악장으로 전부 사용됐는데도 ‘삼장’ 내용 부분만 편의상 발췌 한역되어 고려사 악지 등에 수록됐다

17) 최 정여 : 고려의 속악가사 논고, 청주대 논문집 제 4집, 1963, p. 9

면 악장가사의 가요 명칭도 쌍화점보다는 삼장으로 뒀을 가능성이 짙다. 왜냐하면 고려사 악지가 편찬 연대로 보아 악장가사보다 앞이 확실하며 또 正史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려사 악지는 역사적 사실에 중점을 두고, 악장가사는 편찬시 내용과 명칭을 중히 여겼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고려사 악지와 고려사절요 등의 기록은 시대성을 고려하여 처음 사용된 당시의 가요 삼장만을 한역하여 놓았다고 보겠고, 이와는 달리 악장가사는 편찬시에 악장으로 사용된 가요 전부 그대로를 악부에 실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3. 속요 중 서경별곡 만전춘 등 가사 현전 작품의 직역 부분은 독립된 原歌일 가능성이 짙다고 말하기도 했다. 즉, 최 동원님은

익재가 解詩한 것이 서경별곡의 단순한 발췌 한역이라 보겠으나 정석가의 끝 연이 꼭 같은 가사로 되어 있다는 점은 혹시 이 부분이 당시 유포되어 있던 독립된 노래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¹⁸⁾

또, 최 정여님은

고려 속악가사는 결국 민요로 형성되었다 하겠으며, 따라서 속악가사 중 同一句 그것들은 삼장이 독립되어 속악가사로 사용되었듯이 본래 삼곡이래 내려 오면서 사용되었던 단형의 속악가사로서 애창되어 온 것들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想으로도 민요중에서 유사형을 배열하여 놓으면 서경별곡……등의 類와 근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소악부 직역시 부분은 독립된 원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정과정, 정읍사, 만전춘도 본래 단형에다 후렴 혹은 합성으로서 악절에 부합시킨 것이 아닐까 한다.¹⁹⁾

고 논술하고 있다. 이는 확실히 수증이 가는 견해라 하겠다. 이런 논거로 보더라도 삼장은 쌍화점의 일부 한역이 아니고 독립 原歌의 한역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익재가 解詩로 남겨 놓은 것으로 보아 속요는 상층계 층간에도 유행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익재 한역시 중 단연 형식의 정과정 같은 가요는 대의가 거의 한역시에 담겨 있어 그리 문제가 되지 않겠

18) 최 동원: 앞의 책 p.8

19) 최 정여: 앞의 책 p.43

지만, 연장 형식의 가요는 해시 부분이 전체 가요에 비해 극히 일부분이다. 서경별곡은 2연에 해당하는 부분, 만전춘은 첫연, 정석가는 끝연 부분만 한역되어 있다. 그리고 이 한역부분이 전체가요를 대표할 만큼 특별한 연이라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한역부분은 독립 原歌였는데 뒤에 타 가요와 합성되면서, 전체 가요의 일부가 됐다고 보아진다. 쌍화점과 삼장의 판제도 이와 같은 각도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속가의 입장과는 달리, 삼장이 모태가 되어 쌍화점이 생성, 확대된 점은 특이하다고 하겠다.

IV. 쌍화점 형성의 시대 배경

문학은 문학 독자의 정당한 근거와 목적을 갖고 존재하긴 하나 사회와 깊은 연계를 맺고 있음도 사실이다. 즉 문학은 시대의 특질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는 특수한 장점을 갖고 있으며²⁰⁾ 또한 사회 형태의 반영이자 결과이기도 하다.²¹⁾ 문학은 문화의 일부로서 사회적 연관성을 갖고 그 환경속에서만 발생한다.²²⁾고 말해진다. 이것이 민요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민요는 생성과 보존에 있어서 그 사회의 어떤 상황에 근본적으로 좌우되기 때문이다.²³⁾

우리의 고대 가요 중에 민요성이 짙은 고려 속요는 사회와의 관련속에서 생성된 대표적인 문학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사회성을 가장 많이 띠고 생성된 속요가 쌍화점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 가요의 형성 배경인 사회상을 살펴봄으로써 본가를 더욱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쌍화점의 제 2 연인 삼장 부분의 내용은 이미 이러한 관점으로 고찰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1, 3, 4연의 형성 배경만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20) Thomas Warton: History of English, London, 1774

21) Ruth Finnegan: Oral Poe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22) Rene Wallek and Austin Warren: 앞의 책

23) Ruth Finnegan; 앞의 책

(1) 외부 세력의 억압

총렬왕 이후 공민왕 이전까지의 고려는 원의 속국이 되어 거의 자주성을 상실했으며 국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중 貢女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 원 지배하 약 80년간에 처녀공납사신의 왕대 수가 50 여차례였으며, 공납처녀는 수백 명에 달했다.²⁴⁾ 총렬왕 원년 2월에 태부경 朴禴가 “우리 나라에는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습시다. 그런데 높은 이나 낮은 이가 한 아내에만 그치고 아들이 없는 사람도 감히 첩을 두지 못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는 아내를 얻는 데 제한이 없으니 신은 인물이 장차 모두 북쪽으로 흘러 나갈까 두려워 하나이다.”²⁵⁾라는 상소를 한 것을 봐도 알 수가 있다. 처녀와 과부를 공녀로 보내기 위하여 ‘결혼도감’이니, ‘과부처녀추고별감’이라는 관청을 두고 그 징발에 힘썼고 또 총렬왕 33년 9월에는 시집가는 양가의 처녀들은 관청에 신고해야 된다는 조칙을 내렸으며 위반자에게는 형벌을 가하기도 하여 처녀의 징발에 불행히도 뿔힌 집에서는 밤낮으로 곡성이 끊이지 않고, 목매거나 줄도하는 자가 많았다²⁶⁾ 하니 그 정황 또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외침 시 외국 군대에 의한 약탈 능욕 또한 비밀비재했다²⁷⁾고 하며 특히 총렬왕 때 합단의 군사 수만 명이 두 고을을 함락시키고는 부녀자를 운간하고 포를 뒀다²⁸⁾는 사실은 외부세력에 의한 고려 여성들의 수모가 극에 달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쌍화점 제 1연의 내용이 이런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당시 민중들의 애한으로 가득찬 마음이 응결, 가락으로 변조된 고백의 문학이라 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외부 세력에 의한 성적 피해 현상을 회회인으로 대표시켜 표현한 대유법 기교의 민중가요가 아닌가 한다.

24) 유 흥렬 : 고려의 원에 대한 공녀, 진단학보 18호 1957, p.37

25) 고려사절요 권 제19 총렬왕 원년 윤 12월

26) 고려사절요 권 제25 총숙왕 후 4년조

27) 한국여성사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편저 p.185 참조

28) 고려사절요 권 21 총렬왕 16년 12월조

(2) 지배 계층의 문란

다음으로는 쌍화점 3연의 사회성과 형성과정을 말해 보려 한다. 본 개요의 3연은 왕 등 지배 계층에 의하여 자행된 성적 문란 현상이 그 배경이 되었다.

충렬왕은 그의 아들 충선에게 동왕 24년 1월에 양위했다가 8월에 복위했다. 그 뒤부터는 더욱 정치에 뜻을 두지 않고 황음 연락에만 탐닉했으며, 충선·충숙·충혜왕도 음란하여 왕으로서의 체모를 지키지 못했다. 충렬왕은 여염집 부녀자를 자주 음행했으며 충선왕은 성도착행위까지도 한 번태성육자였다.²⁹⁾ 그런데 이들 중 가장 심한 음란 행위를 한 왕은 충혜왕이었다. 충혜왕 2년 11월에는 내시 田子由의 집에 행차하여 그의 아내 이씨를 강제로 간음했고, 남의 집안 일을 잘 아는 장님과 무당에게 미모가 뛰어난 여자가 있는 집을 가르쳐 달라고 못살게 했으며,³⁰⁾ 또 궁으로 뽑혀 들어 오는 여자가 눈물을 흘린다 하여 첩죄로 때려 죽였다³¹⁾고도 한다. 그의 시종들은 대개가 불량배였으며, 결국 원제에 의해 계양현으로 귀양가던 도중 죽었다. 귀양보내기 전에 원제가 “너는 백성들의 왕이 되어 백성을 너무 심하게 약탈했으니 너의 피를 천하의 모든 개에게 먹여도 오히려 부족하다고³²⁾ 한 점이나 고려 백성들이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는 다시 살 수 있는 날을 보겠다.”³³⁾ 고까지 했다. 비교적 기록에 음란행위가 적게 나타난 왕이 충숙왕인데 그도 즉위 4년에 미행으로 기녀 단년환의 집에 가서 은폐를 후하게 하사할 정도였다³⁴⁾고 하니 그 당시 지배 계층에 의한 백성들의 수난이 어떠한가를 짐작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볼 때 쌍화점 3연에는 왕들의 문란했던 당시의

29) 고려사절요 권제 23 충선왕 2년 10월조

30) 앞의 책 ① 충렬왕 34년 10월조 ② 충선왕 5년 6월조

31) 앞의 책 권제 25 충혜왕 후 4년 8월조와 9월조

32) 고려사절요 권제 25 충혜왕 후 4년 12월조

33) 앞의 책 충혜왕 후 5년 1월조 이외에도 충혜왕은 한 해에 6차례 비행을 저질렀다는 기록이 있음.

34) 앞의 책 권제 24 충숙왕 4년 1월조

사실들이 배경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자연 발생적으로 이런 유의 노래가 백성들에 의해 형성되었을 것이다. 특히 충렬왕 이후에 참요가 많이 등장하여 유행하였다³⁵⁾는 것도 사회 상황과 관련한 상화집 발생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된다.

(3) 무리배들의 횡포

4 연에 “술풀지비……그짓아비 내손모글 주여이다”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라는 여성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는 ‘그짓아비다’. ‘그짓아비’는 술을 파는 집의 관리자나, 술집과 관련돼 있는 무뢰한으로, 완력을 행사하면서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시정잡배의 무리라고 볼 수 있다. 충혜왕은 불량배인 朴良衍, 林信, 崔安義, 金善莊, 承信 등을 시종으로 삼았으며 남의 집부녀자를 약취할 적에도 불량배들을 동원했다. 원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들 무법자 불량배 집단들은 주막을 중심으로 모였고, 그들 스스로 주막을 경영하기도 하여, 부를 쌓으면서 비행을 자행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충렬왕 이후 불량배들의 부녀 약취 사건 중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충숙왕 3년 3월에 申汝桂라는 사람의 아내 김씨가 여종을 데리고 거리에 나갔는데 불량배 10여명이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 들어 메고 달아났다.³⁶⁾

2) 충혜왕 후 4년 9월에는 불량배 鳳骨의 무리가 大家라 사칭하고 밤에 주부 孔甫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아내를 강간하였다.³⁷⁾

이상의 것은 사적에 기록된 몇 예이지만 생각해 보면 일반 서민인 백성이 불량배에 의하여 억압되고 착취됐던 사실이 일일이 기록됐을 리 없다. 위의 기록에 관련된 여자도 전부 일반 백성의 아내가 아닌 관리의 부인이었다. 만약 피해 대상이 백성의 아내라면 이렇게 기록으로 남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의 여러 정황을 보전대 술집을 중심으로 무리를 지어

35) 이 때 유행한 참요로는 萬壽山謠, 墨册謠 阿也謠 등임.

36) 앞의 책 권 제24 충숙왕 3년 3월조

37) 앞의 책 권 제25 충혜왕 후 4년 9월조

지내는 잡배 무뢰한들에 의한 일반부녀자들의 피해가 많았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추단체 볼 때 필자는 쌍화점에 나오는 술집아비가 이런 계층의 무뢰한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하며 그런 집단의 횡포에 의하여 고통받은 당시의 사회 상황이 4연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된다.

V. 결 론

지금까지 삼장의 성격, 삼장과 쌍화점의 관계, 쌍화점 형성의 시대 배경에 대하여 논하여 보았다.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고려사 악지의 한역가요 삼장은 원대 유행 민요로서 吳潛 등에 의하여 충렬왕 때에 악장으로 채택된 가요다.
2. 삼장은 쌍화점의 모태가 된 기본연이고, 쌍화점은 삼장이 사회상을 배경으로 확대 발전한 가요다.
3. 쌍화점 가 연은 불교계의 타락, 외부 세력의 억압, 지배계층의 문란, 무뢰배들의 횡포 등 사회 각 계층의 비행으로 피해를 입은 민중의 노래다.
4. 삼장의 확대 발전인 이 쌍화점은 충렬왕 이후 원지배하의 어느 시기에 악장으로 채택되면서, 原歌 삼장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겠다.